

“득표율 95% 압도적 지지 이끌겠다”

“광주 골목·전남 논밭을 누비겠다”

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박지원 광주·전남위원장

지역 곳곳 찾아 민심 청취
인사·예산 호남 보답받아야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남 공동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국민, 즉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 국민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해결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꾸린 골목골목 선대위는 전국 ‘골목’에서부터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가 지역 곳곳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신설한 골목골목 선대위에서 정청래 의원과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민심을 훑기로 했다. 박 의원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



서 “과거의 선거 유세가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치르는 집중 유세 중심의 캠페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권자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판단에서 골목골목 선대위를 꾸리고,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이 아발로 민심 청취가 중요한 지역이다. 호남은 과거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

지만 지역 발전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도로 어렵다”며 “특히 기후변화와 지방-인구소멸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가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이끌 책임자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이제 우리 광주·전남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출범식을 갖고 투표율 85%, 득표율 90%를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박 의원은 투표율 90%, 득표율 95%로 압도적인 당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0.73%p 차이로 패배하면서 경제, 남북관계,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과거 호남이 압도적인 지지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처럼 또 한 번 95% 득표율을 기록해, 인사와 예산 국책 사업에서 호남도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계인 광주에서 ‘이재명 바람’을 만들어 전국화해야한다”며 “정청래, 박지원이 광주·전남에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그만큼 호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정청래 광주·전남위원장

“현장밀착형 선거운동으로
투표·득표율 끌어 올릴것”

“광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불표를 줬던 1997년 대선처럼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광주·전남지역을 누비고 다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구 을)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공동위원장이 21대 대통령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광주일보와 만나 22일간의 대선 운동기간의 목표를 밝혔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의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많은 지역을 찾아가 지역민을 일일이 만나는 광폭행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유권자를 만나려고 유세차도 타지만, 광주지역 골목과 전남지역는 밤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투표·득표율을 끌어 올릴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의 현장 밀착형의 선거운동 방식인 골목골목선거위원회의 컨셉을 제안



했다는 정 의원은 광주·전남 전역을 누비기 위해 나주의 한 펜션을 숙소로 잡았다. 정 의원은 이날 유세차에 올라 광주 동남을 지역을 돌고 나주로 이동해 내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비호남 출신이면서도 광주·전남지역을 맡은 정 의원은 “직접 이 후보에게 광주·

전남을 밟겠다고 제안했다”면서 “지지를 이 낮은 지역을 끌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의 지지율을 극한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 공동위원장을 맡은 일화도 소개했다. “이 후보에게 호남을 맡겠다고 제안하자 이 후보가 웃으면서 ‘광주·전남에 인기가 좀 있으세요’라고 물었다”면서 “곧바로 ‘인기 좀 있습니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사실 불안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광주·전남 현장에서 지역민이 따스하게 맞아줘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분들에게 (법사위원장을) 아무지게 해서 지역민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많은 지역민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광주시장 출정식에 참석해 “이 후보가 당당하게 대선 후보가 돼 출근길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후보를 지켜준 광주시민의 열열한 지지가 떠올랐다”면서 “이 후보를 끝까지 믿고 민주당의 심장으로서 지지해준 광주시민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고 큰절을 올렸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

국힘 변화 몸부림…새 비대위원장에 35세 김용태

“보수개혁·대선승리 비전 제시”

국민의힘은 12일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김용태(35) 의원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전날 조유 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김 의원을 내정한 바 있다. 김 지명자는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 지금 국민의힘에 중요한 것은 소통과 개혁, 그리고 통이다”며 “우리가 해야 할 소통의 핵심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매도하지 않고 이해함으로써 대립의 장벽을 넘는 관용이다”고 말했다.

또 “탄핵을 찬성한 국민도, 탄핵에 반대한 국민도 모두 각각의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다”며 “지난 5개월여 동안의 괴로움의 기억을 내려놓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가야 할 정치개혁의 길은 적대적 진영 대결의 정치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보수는 선동적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 공공선을 위해 소

통하고 숙의하는 민주주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협치형 정부를 설계하는 7공화국 개헌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합은 국민을 유혹하는 포퓰리즘 정치로부터 건전한 민주공화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통 큰 연대’이다”며 “그동안 보수정치에서 배제되거나 상처받고 떠난 세력들, 뿌리가 달라도 같은 상식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잘못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크게 연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짧은 선거기간 동안 젊은 리더심으로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개혁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생인 김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당내 최연소 의원으로,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김 지명자는 오는 1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덕수, 김문수 선대위원장 제안 거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2일 언론과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김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사양했다”며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선

대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원 투표 결과를 수용하면서 무소속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김 후보와 회동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한 전 총리는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17·18일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1면에서 계속

시민들은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시내버스 승하차 때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이번 무료 운행이 5·18 전야제와 기념식, 주말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 교통 혼잡 완화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교통 혼잡 우려에 따라 기념식 행사 당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청옥삼거리에서 수곡·태령삼거리가 교통을 통제한다. 행사장 출입증을 받지 않은 차량 운전자는 임시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광주동초등학교와 효령노인복지타운에 주차한 후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셔틀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이주호 권한대행, 빈틈없는 공명선거 당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21일 남은 대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빈틈없는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권위에 따라 짧은 기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를 확고히 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우선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날 8일부터 운영한 대선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답 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평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넋밭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융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90 • 북광주 625-3761 • 신 222-9171 • 영 571-7659 • 오 266-7601 • 동 433-1503 • 우 신 433-1503
동구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부 225-0001 • 동 영 222-9054 • 동 정 222-9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북 651-1833 • 동 673-6836 • 호 675-6605 • 진 671-7276
서구	• 광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온 전 376-7153 • 치 평 376-6511 • 동 일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국 959-1920 • 청 전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영고자 또는 관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거나 바가지에 달한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가호
(가) 분묘 소재지: 전남 목포시 대양동 95-3번지
(가호) 목포 기수 무연고 1가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존
3. 개장방법: 유언분묘는 영고자와 협의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세청법령에 의거 관할행정
기관이 취할 수 있음
4. 개장 후 안치처소 및 기간
(가) 안치처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정로 933-43(삼상추모공원)
(가) 안치기간: 안치 후 5년
5. 공고기간: 최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차: 신 고 제: 정감용 010-9195-4035
- 연차: 연차: 가(가)분묘개장공고(가) 010-5010-8231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장에 분묘원칙 등을 확인하고 사장은 해당 분묘의 관리책임자(대표, 책임자)를 등 기와 임명사(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항 구간 내에 공사 중 세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물이 불가능 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정감용 010-9195-4035
가(가)분묘개장공고(가) 010-5010-8231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제고합5 포고령위반
- 피고인: 1. 망 김관두, 2. 망 김창석,
3. 망 김용빈

위 피고인들은 포고령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년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용규, 김준영, 김은영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3년

先州日報

광주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

광주및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상용(340725-1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군분로212번길 1-4 (중·상동)

피상속인 망 김상용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노단333호로 신청하여 2025년 5월 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13일

- 상속인: 김중강(721025-1XXXXXX)
광주 북구 자라봉로56번길 15-6, 202호(양산동)
- 신고기간: 2025. 5. 13. ~ 2025. 7. 23.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중강의 주소

자본감소(감자) 및 주권제출 공고

회사는 2025년 05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00원을 금 13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37,500주 중에 37,000주를 1주당(액면가액 10,000원) 금 10,000원에 매입하여 임의 유상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고,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3일
주식회사 케이비메이저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838
대표이사 노경빈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